

광산갑 불법선거 논란 주도적 해결 않고 선관위에 떠넘겨

마무리 단계 돌입한 민주당 공천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공천작업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중앙당 지도부가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을 인용하는 등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 작업 마무리...친문·홍출신 강세=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에 소병철 전 법무연수장을 전락공천하는 등 5개 지역 전략공천을 결정하고,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 등 현역 의원 지역구 30곳을 무더기로 단수 공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등 전·현직 지도부와 친문 핵심 인사들이 '무혈 입성'하고, 한 때 인적쇄신론의 표적이 되었던 86그룹도 거의 물갈이 없이 공천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금까지 모두 253개 지역구 가운데 220개, 전체의 87% 공천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천의 가장 큰 특징은 현역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선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간재함'이 확인됐다. 우선 현역 의원들은 탄탄한 지역 조직과 인지도 등을 내세워 곳곳에서 승전고를 울렸다. 청년·여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해 상대적인 '페널티'를 부여했지만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평가가 많다. 현역 물갈이 비율은 현재 기준, 전체(129명)의 26%(34명)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차 경선에서 3선 이상 7명의 현역 탈락자가 나오는 아변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질서 있는 '혁신'을 이뤘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전반적인 현역 강세에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했다. 특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도전자들의 경우 불출마한 김의겸 전 대변인 등을 제외한 23명 중 현재까지 13명이 공천을 받았다. 한병도 전 정부수석(전북 익산), 신정현 전 농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 등이 경선에서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친문 의원들 역시 강세를 보였다. 홍영표(인천 부평)·전해철(경기 안산 상록갑)·김태연(경기 성남 수정)·박광은(경기 수원정)·황희(서울 양천갑)

현역·친문·홍출신·86그룹 강세

30% 목표 여성공천 14%에 그쳐

광주·전남 곳곳 경선 후폭풍 여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이상호 전 원내대표(서울 서대문갑) 등 86그룹 다수도 공천을 받아, 일각에서 주장하던 '물갈이론'을 무색케 했다. 영입인사들 19명 중 17명에 대한 배치가 완료됐다. 최혜영 강동대 교수 등 5명이 비례대표 경선에 도전하기로 했고,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순천·광양·곡성·구례갑) 등 12명은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당내에선 이번 공천을 놓고 일찌감치 물을 확정해 안정정 '시스템 공천'을 이뤘다는 자평을 내놓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최종 공천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역구에서 공천을 확정지은 여성은 전체의 14%(30명)에 불과, 여성공천 30%는 이번에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인재영입 과정에서 영입 2호였던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발생, 일부 지도부 중심의 '밀실·깜깜이 영입'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광주·전남 후폭풍 여전=광주와 전남 선거구 18곳 중 후보가 확정된 곳은 광주 7곳, 전남 9곳 등 모두 15곳이다. 광주 8곳은 경선 결과와 단수후보(서구갑) 추천을 통해 후보가 결정됐다. 하지만,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대한 재경선을 결정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남은 10곳 선거구 중 이날 중앙당 최고위에서 3인 경선으로 반복된 여수갑 선거구를 제외하고 후보가 확정됐다. 이날 최고위는 기존 2인 경선지역이었던 여수갑 선거구에 대해 3인 경선지역으로 결정했다. 애초 컷오프했던 주철현 예비후보를 포함해 강화수·김유하 예비후보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된다.

최고위는 또 이날 광주 광산을 후보 경선에서 패한 민형배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오염된 권리당원' 제외와 재경선을 결정했다. 광주 광산을 경선에서는 박시중 예비후보가 민 예비후보에게 승리



문 대통령 마스크 안쓰고 수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했다. 경선 이전에 권리당원 명부 과다 조화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김성진 예비후보가 박시중 예비후보를 도했다는 이유다. 김 예비후보가 조화한 권리당원 명부가 경선에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보 경선에 앞서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날 당 지도부의 결정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 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경선에 참여했던 광주 광산을 권리당원의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의해 명부가 노출됐을 뿐인데, 중앙당이 '오염된 권리당원'이라고 치부해 경선에 참여할 권리까지 박탈한다면 지역 당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 기자 cki@연합뉴스

민생당 김정화 대표 "손학규 종로 출마해 달라" 박지원·정동영 등 중진들엔 수도권 출마 요구

일부 출마자·원외위원장도 촉구
광주·전남 의원들, 지도부는 펼쳐

4·15 총선을 위해 당내 결집과 전국적 외연 확대가 필요한 민생당에서 '손학규 종로 출마론'이 제기되는 등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당 내외에서는 민생당의 지지율이 미세하게 오르자 비례대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난 8일 민생당 일부 총선 출마자들과 원외위원장들은 "손학규 전 대표 등 경륜과 비전을 갖춘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지역구에 출마, 선당 후사의 물꼬를 터달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비례대표만 바라보고 있는 당내 분위기를 일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일부 인사들은 손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 이면에는 손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비례대표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불만이 담긴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아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김정화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 정동영·전정배·박지원 등 중진 여러분께서 수도권 협치에 출마하는 용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맞붙을 냈다.

손학규 종로 출마론에 더해 정동영, 전정배, 박지원 의원 등의 수도권 출마론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당 광주·전남 현역의원들이 민주당 바람에 악전고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론에 민생당 광주·전남의원들은 펼쳐 뛰고 있다. 손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 전남 출신 대선 잠룡인 이낙연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도와주는 구도가 형성, 광주·전남 선거전략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당이 도와주지 않음에 상황이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김 대표의 발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손 전 대표의 종로 출마론은 당내 공식적으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김 공동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김 대표가 개인적 발언이며 당 지도부와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손 전 대표가 종로 등 수도권의 상징적 지역구에 출마 전국적인 선거 전선을 형성, 당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손학규 종로 출마론'의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비례대표 도전장 낸 후보 몇명이나 국회 진출할까

민주 5명·정의당 3명 후보군 포함 경선 앞두고 얼굴·공약 알리기 치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는 광주·전남 지역구 18석 이외에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수를 보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후보군의 선전 여부도 이번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당은 아직 비례대표 인선 절차를 밟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군에 광주·전남지역 출신 8명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당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근 비례대표 후보 40명을 뽑은 1차 심사 결과 광주에서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공동대표가, 전남지역에서는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 송찬식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상덕 전남대 교수, 정광일 세계한인민중회의 사무총장 등 5명이 포함됐다.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은 오는 10-11일 이틀간 권리당원과 국민경선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25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12-13일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에 의해 순번이 결정된다. 지역간 인배를 고려한다면, 광주·전남지역의 1-2명 후보를 당선 안정권 순번의 비례대표로 선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선을 통해 순번까지 정한 정의당의 비례대표에는 광주지역 강은미 전 정의당 부대표가 3번, 문정은 전 광주광역시 청년센터 센터장 11번, 전남지역 박용두 후보 정의당 농민위원장이 14번 순번을 받아 광주·전남지역 출신 3명이 배치됐다.

정의당의 경우, 강은미 전 부대표의 당성이 유력하고 문정은 전 센터장도 당선 가능한 순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례대표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은 2-3석 이상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당 경선을 앞두고 SNS 홍보를 늘리는 등 얼굴과 공약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020. 03. 06.(금) ~ 03. 19.(목)

전남지역 거주(예정)중인 만18세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마을로'란

급여조건 월 180~200만원 + 활동수당 30만원

활동지역 전라남도 내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참조)

지원내용
마일리지 수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직장 내 조기 적응을 위한 멘토운영

문의전화
전남테크노파크 : 061) 729 - 2914
녹색에너지연구원 : 061) 331 - 8560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061) 362 - 5205

접수 방법

Click! 전라남도 일자리통합정보망 job.jeonnam.go.kr 접속

일자리지원 - 마을로 - 참여기업현황 내 참여기업 확인 후 접수 (회원가입 필수)

일자리지원 - 마이페이지 - MY 현황에서 접수내역 확인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남테크노파크,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